



##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량>조에 보이는 '귀신' 세력

Goblins` Power in the Dohwanyeobihyeongnang section of the Samguk Yusa

---

저자

(Authors) Shin, Jong-Won

출처

[신라사학보 \(14\)](#), 2008.12, 5-26(22 pages)

(Source)

[SILLASAHAKPO \(14\)](#), 2008.12, 5-26(22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397>

APA Style

(2008).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량>조에 보이는 '귀신' 세력. 신라사학보 (14), 5-26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7/21 11:4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랑>조에 보이는 ‘귀신’ 세력

辛 鐘 遠\*

- |                     |                     |
|---------------------|---------------------|
| I. 머리말              | IV. <도화녀·비형랑>설화의 구조 |
| II. 神異한 출생과 신이한 능력  | V. 맺음말              |
| III. 舍輪·銅輪系의 갈등과 共生 |                     |

## 【국문초록】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랑조는 진지왕에 대한 기록인데, 오히려 그가 폐위된 뒤 영혼이 관계하여 낳은 아들 비형랑의 행적이 자세하다. 이 條는 진지왕이 정치를 어지럽게 하였고 다소 문란했다는 사실을 내비치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비형랑에 대한 소개는 의외로 우호적이다. 비형랑은 밤나들이를 즐기며 무리를 이끌고 다리놓기 등의 공사를 씩 잘한다. 그의 행적을 볼 때 진지왕의 아들이며 황룡사구층탑을 감독한 용춘과 일치한다. 그 자신이 화랑이며, 주요 관직을 받았고, 전장에 참여하는 등 비형랑은 비록 왕위계승의 범위에서는 벗어났지만 진평왕·선덕여왕대에 여전히 무시 못할 존재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주요 논저 :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일지사, 2004 ;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 <신라의 세 보물과 만파식적·거문고>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외 다수

설화의 배경은 그를 후원하는 세력 혹은 그가 다시 권좌에 오르기를 바라는 편에서 비형랑의 비범한 능력을 신전했다고 생각된다.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랑조에서는 비형과 그 무리를 귀신이라고 하였지만 그 성격은 도깨비에 가깝다. 그러므로 도화녀비형랑조와 같은 내용을 실으면서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그 마지막에 비형을 신라 두두리 [도깨비]의 시조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뿐 아니라 최초의 두두리 비형랑은 그 뒤로도 경주사람들에게 존송을 받는다고 하였다. 신라 중고기는 동륜계 즉 진평-선덕-진덕왕으로 이어지는 성골임금시대였다. 이들 혈통에 가리어 왕위계승권에서 밀려난 세력이 사륜계 즉 용춘-김춘추(무열왕) 계열이다. 진덕왕 이후 다시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함으로써 사륜계의 세상이 되었는데, 도화녀비형랑조는 이들 사륜계가 동륜계 못지않게 능력이 있고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두 혈통은 그 신앙기반에서도 대조적이다. 동륜계가 불교의 교리를 원용하고 고승들이 거기에 동원되는 데 비해 사륜계는 재래의 귀신 그 가운데서도 도깨비의 권위를 빌리는 등 전통적 사고를 고수하고 있다. 비록 나라의 시책이 불교를 내세웠을지라도 전통적 사유와 가치는 불교라는 新思潮에 언제나 부담이 되는 존재임을 도화녀비형랑조는 말해주고 있다.

주제어 : 도화녀, 비형랑, 귀신, 사륜계, 진지왕, 동륜계, 진평왕, 선덕여왕, 도깨비, 두두리, 목랑, 귀신다리, 길달, 흥륜사, 황룡사구층탑, 왕가수

## I. 머리말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랑>조는 설화성이 짙다. 그러므로 그 半은 설화로서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말미에서 당시 경주지방의 풍속[鄉俗]과 관련된다고 하였으니 각종 지리지나 구비전승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와서 아이를 잉태시켰다거나, 귀신이 무리지어

놀이 때로는 큰 공사를 잘도 해내고, 어떤 귀신은 여우로 둔갑하는 등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삼국유사》의 왕력편이라는 한정된 지면에 어느 특정한 王代의 에피소드로 실린 까닭이나 배경 또한 궁금하다.

당연히 비형랑이 역사상의 누구를 가리키며, 그가 거느리는 무리는 어떤 세력인지가 문제된다. 무엇보다 왕의 자식이라면 왕자로서 왕위계승을 넘볼 수 있는 위치인데 그렇지 않은 비형랑의 행각과 치적은 시간을 거슬러 그 아버지 진지왕의 폐위사실까지도 해명해줄 지 모른다.

지금까지 <도화녀비형랑>조를 다룬 논고는 몇 편이 나왔다. 그 연구경향은 역사학 또는 설화학의 어느 한 쪽에 기댄 것으로서 전체를 조망하는 데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 글은 나름대로 설화도 음미하면서 그것이 말해주는 역사상의 사실을 파악하려는 욕심에서 쓰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왜 비형랑이 귀신으로 나타나야 했으며, 이들이 말하는 귀신은 어떤 부류나 인물의 사람들로써 그들이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논의에 앞서 <도화녀비형랑>조를 全文 소개하겠다.

제25대 舍輪王의 시호는 眞智大王이고, 성은 金氏다. 왕비는 起烏公의 딸 知刀夫人이다. 太建 8년 丙申(576)에 왕위에 올랐다.<고본에는 11년 기해(己亥)라고 했으나 잘못이다.> 나라를 다스린 지 4년 만에 정치가 어지러워졌고 풍속이 음란하여 나라사람들이 그를 폐위시켰다.

그전 일이다. 沙梁部 서민의 딸이 자태가 곱고 아름다워 사람들이 桃花娘이라고 불렀다. 왕이 듣고 궁중으로 불러들여 사랑하고자 하니, 여자가 말하였다. “여자가 지킬 일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어찌 남에게로 가겠습니까? 비록 임금의 위엄으로서도 끝내 정조는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묻기를, “[너를] 죽인다면 어찌하겠느냐?”고 하니, 여인이 말하였다. “차라리 저자거리에서 목을 베일지언정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왕이 희롱삼아,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고 물으니,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그를 놓아 돌려보냈다.

이해에 왕이 폐위되어 죽었다. 그 후 3년에 그 남편도 죽었다. 죽은 지 열흘 뒤 갑자기 밤중에 왕이 평상시처럼 여인의 방에 들어와 말하였다. “네가 옛날에 승락하였듯이, 지금 네 남편이 없으니 되겠느냐?” 여인은 가벼이 허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고하였다. 부모가 말하기를, “임금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여 딸을 방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왕이 7일 동안 머물렀는데, 항상 오색 구름이 집을 덮고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였다. 7일 뒤에 갑자기 [왕의] 자취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임신을 하였다. 달이 차서 해산하려 할 때 천지가 진동하더니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鼻荊이라고 하였다.

眞平大王이 이 [사연의] 특이함을 듣고 궁중에 데려다 길렀다. 나이가 15살이 되어 執事 벼슬을 주니, 밤마다 멀리 도망가서 놀았다. 왕이 勇士 50인을 시켜서 [비형을] 지키도록 했으나, 매번 月城을 날아 넘어가 서쪽 荒川 언덕 위 <서울 서쪽에 있다.>에 가서 귀신들을 데리고 놀았다. 용사들이 숲 속에 엎드려서 엿보니, 귀신들이 못 질의 새벽 종소리를 듣고 각각 흩어지자 비형랑도 돌아왔다. 군사들이 이 사실을 와서 아뢰니, 왕이 비형을 불러 물었다. “네가 귀신들을 데리고 논다는 것이 사실인가?” 비형랑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는 귀신들을 시켜 神元寺 북쪽 도랑 <또는 神衆寺라고도 하나 잘못이다. 또는 荒川 동쪽 깊은 도랑이라고도 한다.>에 다리를 놓아라”고 하였다. 비형랑은 임금의 명을 받아 귀신들로 하여금 돌을 다듬게 하여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다. 이 때문에 鬼橋라고 불렀다.

왕이 또 물었다. “귀신무리 중에서 사람으로 출현하여 조정일을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비형랑은 “吉達이란 자가 있어 가히 나라의 정사를 도울 만합니다”고 하였다. 왕이 “함께 오라”고 하여, 이튿날 비형랑은 [길달과] 함께 왕을 뵈니 [왕은 길달에게] 執事 벼슬을 주었다. 과연 충성스럽고 정직하기가 비할 데 없었다. 이때 각각 林宗이 아들이 없으므로 왕이 명령하여 뒤를 이을 아들로 삼게 하였다. 임종은 길달을 시켜 興輪寺 남쪽에 樓門을 세우게 했는데, [그는] 밤마다 그 문 위에 올라가 자므로, [이를] 吉達門이라고 하였다.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변해 도망가버리니, 비형랑은 귀신을 시켜 잡아 죽였다. 그리하여 귀신의 무리들은 비형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서 달아났다.

당시 사람들이 글을 지었는데 이렇다.

聖帝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 비형랑의 집이 바로 그곳일세

날고 뛰는 귀신의 무리들아/ 이곳에 머물지 마라

그 고장 풍속에 이 글을 써 붙여서 귀신을 물리쳤다.

## II. 神異한 출생과 신이한 능력

도화녀와 비형랑 사이의 人鬼交媾 설화는 비형의 출생이 남달랐던 만큼 그는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고, 이후 그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는 전제가 된다. 인귀교구의 결과 임신한 것을 ‘鬼胎’라 하는데 이 설화는 귀태설화이기도 하다. 도화녀설화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지목되는 것으로 《태평광기》의 ‘蕓遂’이야기가 있다.<sup>1)</sup> 하지만 자생적 설화가 우연히 중국의 그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역사설화[史話]가 어떠한 史實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면 그 배경을 考究함에 있어서 인귀교구는 일단 제외된다. 그러면 비형은 언제 태어난 것일까? 설화에서는 진지왕 사후에 태어났다고 하였으니 그를 우선 유복자로 볼 수 있다.<sup>2)</sup> 설화를 되도록이면 사실로 받아들이려는 입장이라 하겠다. 진지왕의 아들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로는 龍春이 있다. 종래 용춘의 다른 이름이 ‘龍樹’라는<sup>3)</sup> 데 이견은 없었다. 그러나 필사본 《화랑세기》가 발견되어 이들이 각각 다른 사람으로 나오자 필사본 《화랑세기》쪽을 신빙하는 연구자도 있다. 필사는 필

1)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224쪽.

2) 김기홍, <도화녀·비형랑 설화의 역사적 진실> 《한국사론》 41·42, 1999, 141쪽.

3) 龍樹—云龍春(《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신덕왕 4년); 龍春—云龍樹(《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원년); 龍春—作龍樹(《삼국유사》 왕력).

사본 《화랑세기》의 참·거짓에 대하여 아직 이렇다 할 소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사료에 입각한다. 혹자는 ‘용수’라는 이름이 불교식이므로 용춘이 불교적 성향의 인물이라고 할 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그것을 단순한 ‘용춘’의 音相似로 본다.

비형은 곧 이 용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설화 속의 인물이라고 하며,<sup>4)</sup> 그는 진평왕 51년(629) 고구려의 娘臂城 공격 때 대장군으로 출전하였으며, 황룡사구층탑을 총감독했던 용춘의 사적과도 부합된다는 견해에<sup>5)</sup> 필자도 찬동한다. 용춘은 아버지 진지왕이 폐위되어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진평왕의 딸 天明夫人의 남편이다. 비형이 용춘이라면 그의 업적이나 활동시기를 보아 진지왕이 20세 전후가 되는 571년부터 574년(진흥왕 35)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sup>6)</sup> 있다. 그러면 그가 황룡사구층탑에 간여할 때는 70세가 넘는 만년의 일이 된다.

도화녀가 진지왕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도 나중의 인귀교구의 전개에 필요한 전제다. 죽은 진지왕이 찾아왔을 때, 왕명을 어찌 거역하겠느냐는 대답과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sup>7)</sup> 이를 두고 不事二夫하는 고려시대의 윤리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sup>8)</sup> 설화 자체에서 굳이 벗어날 필요는 없다.

진지왕이 ‘政亂荒嬉’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이를 수용하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도화녀·비형랑> 설화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라

4) 김두진, <신라 진평왕대 초기의 정치개혁—삼국유사 所載 도화녀·비형랑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69, 1990, 26쪽.

5) 박순교, <진지왕의 개혁과 화랑도의 동향> 《청계사학》 18, 2003, 46~47쪽 ; 김기홍, 앞의 논문, 152~155쪽.

6) 김덕원,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120~121쪽.

7) 김홍철, <도화녀·비형랑 설화 考> 《교육과학연구》 11-3, 1998, 61쪽.

8) 위와 같음.

는 데 유의해야 한다. 진지왕은 자신의 후원세력이었던 거칠부·김무력의 죽음을 맞았고, 동륜계의 위협 속에서 백제로부터의 공격에도 직면해 있었다. 진지왕은 화랑과 미륵신앙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보려 했으나 결국은 폐위되어 불명예스런 평가가 남게 되었다.<sup>9)</sup>

사랑부의 신분이 낮은 여인에게 通情을 요구한 것 자체가 신분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다. 이것은 그런 하찮은 신분이다 왕의 요구까지 거절했다는 설화의 논리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도화녀를 사랑부 출신의 어느 귀족의 딸로 보는 견해가<sup>10)</sup> 있다. 현재 진지왕의 아들로써 용춘만이 알려져 있으니, 그렇다면 지도부인 사이에는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그러한 사료가 찾아지지 않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른 하나는 도화녀가 진지왕의妃 知刀부인이라는 견해다.<sup>11)</sup> 도화녀가 사랑부 여인이라 함은 중대 무열왕실의 왕비족과 일치한다.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금관가야계도 사랑부에 편입되었고, 효소왕대의 화랑 부레랑의 어머니는 沙梁部鏡井宮主로 봉해졌다.<sup>12)</sup> 《삼국유사》 왕력에는 지도부인을 박씨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고기 왕비는 대부분이 모랑부 박씨로서 유독 진지왕만이 폐위된 사실이 잘 이해가 안 간다. 따라서 지도부인을 사랑부 사람으로 본다면 그녀가 곧 도화녀일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진지왕 폐위 후에도 용춘이 중용되는 것을 보면 그의 母系가 결코 寒微한 집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신이하게 태어난 비형은 그 솜씨도 ‘귀신같다’. <도화녀비형랑>

9) 김덕원, 앞의 책. 박순교는 진지왕대에 화랑제도 전반에 대한 維新이 있었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2003, 39쪽).

10) 김기홍, 앞의 논문, 154쪽.

11) 김덕원, 위의 책, 84쪽.

12) 신종원, <모죽지랑가의 역사적 배경—단석산신선사조상명기를 통하여—>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일지사, 2004 참조.

설화는<sup>13)</sup>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고적 鬼橋條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데 맨 뒤에 ‘此東京豆豆里之始’라는 문구가 덧붙여 있다. 경주의 맨 처음 두두리가 비형이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뒤에서 볼 ‘王家藪’조에서도 확인된다. ‘豆豆里(豆豆乙)’은 두드린(두들긴)다는 동작이나 기능면에서 나온 말이며, 도깨비는 ‘돛구(杵)+아비(男·丁·夫)’로서 절구공이를 은유한 것이라 한다.<sup>14)</sup> 두두리는 도깨비의 앞선 이름이며, 그것은 나무[金]神이기 때문에 ‘木郎’으로도 불리게 되었다.<sup>15)</sup> 때로는 ‘獨脚’이라고 써서 다리가 하나인 것으로 흔히 말하지만<sup>16)</sup> 도깨비불을 든 19세기의 도깨비 그림은 다리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둘이고 눈과 입이 표현되어 있다.<sup>17)</sup>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이 설화를 두두리=도깨비의 본풀이[始祖說話]로 인식·소개하고 있는데 반해, 《삼국유사》는 이 이야기를 왕과 그 신변에 관한 사료로 보아 <왕력>편에 편제했을 따름이다.

비형은 궁궐을 넘어 무리지어 놀다가 날이 밝으면 돌아오곤 하였다. 이들이 놀던 곳은 ‘王家藪’나 ‘두두리들’<sup>18)</sup>로서 후세까지 전해 온다.

府의 남쪽 10리에 있다. 州의 사람들이 木郎을 제사 드리던 땅이다.

13) 이 설화를 온전히 일컫자면 ‘도화녀·비형랑 설화’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만 도화녀는 비형랑을 탄생함으로써 설화무대에서의 역할이 끝난다. 따라서 굳이 도화녀를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편의상 <비형랑>조로 부르기로 한다.

14) 박은용, <木郎攷> 《한국전통문화연구》 2, 효성여자대학교, 1986.

15) 강은혜, <豆豆里(木郎) 再考－도깨비의 명칭분화와 관련하여> 《한국학논총》 16, 계명대학교, 1989.

16) 임동권, <도깨비考> 《한국민속문화논고》, 집문당, 1982.

17) 김상엽, <소치 허련의 채씨효행도 삽화> 《미술사논단》 26, 한국미술사연구소, 2008.

18) 오룡 서편, 고속도로 진입로 남편의 西川을 낀 탐정동 일대라고 한다. 이하석, 《삼국유사의 현장기행》, 문예산책, 1995, 71쪽.

木郎은 세속에서 두두리라고 부르는데 비형 이후 세속에서 두두리 섬 기기를 매우 성하게 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 고적, 王家藪).

비록 <비형랑>조에는 두두리=도깨비라는 말은 없지만 비형과 그 무리의 행각은 도깨비 바로 그것이다. 밤에만 활동한다거나 숲을 좋아하는<sup>19)</sup> 속성도 그렇고, 도깨비는 때로 씨름을 거는 등 심술궂은 장난도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거나<sup>20)</sup> 못을 메우는 등 불가사의한 능력을 발휘한다.<sup>21)</sup> 과연 하룻밤에 비형은 왕명을 받아 귀신다리[鬼橋]를 놓았다. 비형은 그 무리 가운데 吉達이란 이를 왕에게 천거까지 하였다. 길달은 林宗公의 嗣子가 되어 ‘길달문’이라는 樓門을 세우는 등 능력을 발휘했으나 어느날 여우로 둔갑하여 도망가자 비형이 다른 귀신을 시켜 그를 죽였다.

### Ⅲ. 舍輪 · 銅輪系의 갈등과 共生

용춘은 진평왕 44년(622)에 內省私臣에 임명되었고,<sup>22)</sup> 선덕왕 때는 국가적 役事 黃龍사구충담 공사를 맡기도 하였다.<sup>23)</sup> 따라서 진지왕이

19) 도깨비[두두리]의 이러한 속성에서 다음과 같은 직책이 나왔을 것이다. “또한 정식의 구실아치는 아니지만 화소에 인접한 8개 부락에서 頭頭人(산림에서 공동으로 땀감을 채취하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을에서 뽑은 지도자)이라고 부르는 산림감시인을 지명하여 산직의 일을 돕게 하였다”.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 숲과 문화 연구회, 1996, 78쪽.

20) 최상수, <도깨비 다리> 《한국민간전설집》, 1958, 270~271쪽.

21) 도깨비에 대한 일반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이한길, <도깨비담과 도깨비 연구> 《서강어문》 9, 1993.

2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해당 年條.

23) 伊干龍春(一作龍樹)幹蠱 率小匠二百人(《삼국유사》 답상, 황룡사구충담).

폐위되었다 하여 사륵계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는 대다수의 연구자가 공감한다.

도화녀·비형랑·길달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풀기도 한다. “중층의 액자구도로 겹쳐져 있다. 진평왕은 비형랑을 둘러싸고, 진평왕에 둘러싸인 비형랑은 다시 길달을 애워싸고 이 가운데서 길달은 이중으로 갇혀 있다. 인물들은 서로 물고 물리는 연쇄적 관계 아래 맺어져 있는 것이다”.<sup>24)</sup> 이들은 공존하지만 갇힌 쪽은 가둔 쪽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길달은 비형에게 죽임을 당했다. 비형도 왕이 그를 믿고 맡기는 만큼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했을 것이나 때에 따라서는 동륵계 왕들과 맞설 수 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진평왕 死後일 것이며, 두 번째는 선덕왕이 돌아가신 뒤다. 하지만 첫 번째 기회는 선덕왕이 왕위를 이었으니 비형이 달리 행동을 취할 여지가 없다. 두 번째 기회는 나이 많은 비형 자신이 아니라 아들 김춘추가 왕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세력은 서로 자신들의 우월성이나 능력을 과시할 것이다.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玉帶를 받았고, 선덕왕이 ‘仞利天의 딸’이라는 중고기 동륵계 즉 성골의 불교 이데올로기는 바로 그러한 시대의 산물이다.<sup>25)</sup>

이에 반해 진자사가 미륵을 친견하고자 회구하며, 미시랑을 국선으로 임명하는 등 진지왕은 미륵신앙과 화랑을 중시하였다. 이를 ‘미르=龍’ 신앙과 관련지어 전통·토착신앙이 왕권에 수용되는 모습으로 보기도<sup>26)</sup> 하고, 비형은 신라 토착적 전통을 중시한 인물이라고도 한

24) 강은혜, 《한국난타의 원형, 두두리 도깨비의 세계—도깨비 설화의 시작》, 예림기획, 2003, 138~139쪽.

25) 신종원, <선덕여왕에 얽힌 소문의 진실>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일지사, 2004 참조.

26) 김덕원, 앞의 책, 71쪽.

다.<sup>27)</sup> 두 견해 모두 진평·선덕왕으로 이어지는 불교정책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토착·전통신앙이 어느 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비형랑>조 전체를 통관하는 神觀念은 토속적이다. 진지왕이 作爲한 비형의 탄생이나 다리·문루의 공사를 감쪽같이=귀신같이 해냈다는 스토리가 그렇다. 불교의 우주관을 빌어 그러한 福德의 결과 황룡사구층탑 같은 大役事가 이루어졌다는 설명과는 판이하다. 비형을 둘러싼 이야기는 인간의 솜씨나 능력, 그리고 日常事에서는 넘보지도 못하는 일은 귀신의 소치로 돌렸고, 이때의 鬼[도깨비]는 불·보살 같은 外來神과 비교해도 별로 손색이 없다. <비형랑>조의 ‘鬼衆’·‘鬼橋’에서 보듯이 그들은 귀신이였다.<sup>28)</sup> 하지만 그 鬼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못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神이다. 문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그(들)가 귀신이기 때문에 폄하한다거나 그(들) 스스로도 결코 열등감을 내비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비형랑>조는 사륵계 스스로거나 사륵계를 비호하는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된다. 동륵계 왕들의 치세기간에도 사륵계가 건재했다면, 그들은 신라불국토설에 맞서서 재래의 정신세계나 권위에 기대고, 나아가 불교에 치우치는 당시의 흐름을 나름대로 견제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우리는 <비형랑>

27) 김두진, 앞의 논문, 24쪽.

28) 박남수는 ‘鬼’를 돌다듬기를 잘하는 집단으로서 비형무리는 사랑부에 집단으로 거주하던 장인들이라 하였다(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1996, 276쪽). 비형의 어머니가 사랑부 사람이라 하여 비형과 그 무리까지 사랑부 소속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박순교는 용춘과 길달을 화랑과 낭도의 관계로 보았다. 아울러 그는 하룻밤에 귀신다리를 놓았다는 것은 渡河用 임시 浮橋를 만든 것이며, 길달문은 조망이나 감시를 위한 망루를 세운 것으로 보았다(박순교, <황룡사구층탑의 역사적 허실> 《유산강인구교수 정년기념 동북아고문화논총》, 2002, 585쪽). 김기홍도 비형과 그 무리의 관계를 화랑과 낭도로 보았다. 앞의 논문.

조에서 할 수 있다. <비형랑> 이야기가 어느 시기에 일회적으로 형성되었다고<sup>29)</sup> 보기는 어렵다. 만약 무열왕대 이후를 지목한다면 이미 왕권을 차지한 마당에 이 문제가 그렇게 절실할 리는 없지만 중대왕실 鼻祖[비형]의 神性을 시대에 맞게 홍보한 것이라고 본다. 실제 聖德大王神鐘銘(771)을 보면 ‘眞智大王寺’가 보인다.<sup>30)</sup> 진지대왕사는 곧 奉恩寺로서 중대왕실이 진지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은 절이다.<sup>31)</sup> 하지만 소문의 특성상 弱者의 불만과 성취욕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보아야 옳다. 말하자면 비형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 때가 오면 언제든 큰 공사뿐만 아니라 나라라도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 무리라 하더라도 이상하거나 궤도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처단하는 自淨能力도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 길달의 죽음에 아닌가 한다.<sup>32)</sup>

29) 김덕원은 도화녀 이야기를 진평왕 즉위 후 동류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김덕원, 앞의 책, 85쪽). 장장식은 진평왕 계열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포된 사건을 무열왕 이후 인위적으로 개변한 것으로 보았다(장장식, <도화녀·비형랑 설화의 성립과 의의> 《황산이흥종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97, 832쪽).

30)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1992, 388쪽 참조.

31) 이영호, <신라중대 왕실사원의 官寺의 기능> 《한국사연구》 43, 1983, 86쪽. 강영경(<고대 한국 무속의 역사적 전개—신라 진평왕대의 辟鬼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2005)은 왕의 이름을 그대로 절이름으로 썼다는 점에서 “진지왕의 종교기반이 불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하였는데, 眞智大王寺는 진지왕 死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긴 절임을 강조하고 싶다.

32) 비형랑과 길달 무리를 귀족과 家臣集團으로 본 다음 글이 있다. 전미희, <신라 진평왕대 가신집단의 관료화와 그 한계> 《국사관논총》 48, 1993. 한편 박순교는 화랑도의 자기분열이라고 보았다. 앞의 논문, 2003. 김덕원은 사료계 내부의 불만으로 인한 이탈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보았다(앞의 책 102쪽). 신태수는 비형으로 하여금 길달을 제거하도록 사주한 쪽은 朝廷이라고 보았다. 신태수, <도화녀·비형랑 설화의 구성원리와

비형이 무리를 이끌고 다니며, 나라의 큰 공사를 지휘하였다는데 이것은 전쟁시 武將으로 나아간 것과 같다. 비형은 ‘郎’이라 불리었으며, 휘하의 유능한 인물을 천거하는 등의 면모에서 비형 자신과 그 무리를 화랑과 낭도로 보는 견해는 타당하다. 주지하다시피 화랑도는 무리를 지어 도의를 연마하고, 山水를 유람하며, 인품의 좋고 나쁨을 알아 조정에 인물을 추천하였기 때문이다.<sup>33)</sup>

동륜계와 사륜계의 양립, 그와 관련된 사상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靈廟寺다. 이 절은 선덕왕대에 양지스님이 간여하였고, 향가 風謠의 배경이기도 하다.<sup>34)</sup> 그런데 아래 사료를 보면 官邊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創寺緣起 영험을 전하고 있다.

신라 때의 불전이 한 둘이 아니었으나, 다른 것은 다 무너지고 헐어졌는데 오직 이 불전만은 완연히 어제인 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 속설에 전하기를 이 절터는 본래 못이었는데 두두리의 무리가 하룻밤 사이에 그 못을 메우고 이 절을 지었다고 전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 불우, 영묘사).

이것이 경주지역의 향간에서 전해지는 내용일 것이나 일연이 불교식으로 덧칠한 《삼국유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 위 사료에서 두두리와 그 무리가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영묘사는 선덕왕 4년에 지은 절인데 당대의 이름난 비형과 그 무리를 두고 달리 누구를 상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황룡사구층탑에 버금가는 영묘사 창건도 양지스님과 선덕왕의 공로가 아니라 비형이라는 신이한 인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설을 확인하게 된다.

---

대칭적 세계관의 향방> 《한민족어문학》 45, 2004, 459쪽.

3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진흥왕 37년조.

34) 신종원, <삼국유사 양지사석조 주석> 《고문화》 40·41, 1992 참조.

#### IV. 〈도화녀·비형랑〉 설화의 구조

<도화녀·비형랑>조는 귀신다리[鬼橋] 및 길달문이라는 증거물의 유래 즉 본풀이다. 물론 이야기에 역사상의 인물이 나오므로 읽는 이에 따라 그것은 훌륭한 사료가 된다. 이야기에서는 도깨비의 功能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온다. 다리를 놓는 일과 문루를 세우는 일이다. 이런 능력을 두고 “도깨비는 土木石 공사에 관련한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신성한 존재”라고<sup>35)</sup> 한다. 비형은 다리를 잘 놓음으로써 이름이 났다. 이 다리는 여느 다리가 아니라 ‘귀신(이 놓은)다리’라고 소문이 났을 것이다. 아마도 “도깨비가 세운 다리는 홍수가 암만(아무리) 쳐도 안 떠내려 가”라는<sup>36)</sup> 俗說의 가장 오래된 사례가 아닌가 한다. 아래 자료를 보면 이런 다리는 역사상 드물지 않았다.

豆豆里川. 천녕현 동쪽 5리에 있는데 곧 대교천의 下流다(《신증동국여지승람》, 여주 산천조).

여주군의 두두리는 《해동지도》, 《동여도》에도 보이지만 지금은 사라진 지명이다. 이 큰다리[大橋]도 두두리들이 놓았다고 했을 것이며, 결국 같은 말이 되겠으나 이 냇가에 두두리들이 살았다는 지명유래가 있었을 법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鬼橋條의 “이것이 동경 두두리의 처음이다”라는 구절 뒤에는 다시 함축·생략된 말을 상정할 수 있다. 그것은 두두리라는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가수조에서 보았듯이 이들

35) 강은해, 앞의 논문, 57쪽.

36) 위와 같음.

도깨비무리는 존경과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오늘날의 도깨비는 下位神으로서 그 神性이 많이 쇠잔해 있지만 제주도의 도깨비[도깨비, 令監] 본풀이에서 보듯이 그는 본래 ① 씨족의 수호신, ② 공동체의 수호신, ③ 대장[治匠]神이라는 점에서<sup>37)</sup> 석탈해와 하등 차이가 없다고 한다.<sup>38)</sup> 비형의 출생 및 능력에 대한 전설은 바로 사륜계 중대 왕실의 수호신으로서 손색이 없다. 비형은 마치 무속세계의 巫祖 같이 위함을 받는다.

두두리는 경우에 따라 家神으로 모셔지기도 했다.

이의민은 무식하여 무격만 믿었다. 경주에서 사람들이 豆豆乙이라 부르는 木魅가 있는데 의민이 이를 집에 맞아 들여 모시고 있었다(《고려사》 128, 이의민전).

고려 말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목랑이 적을 물리치겠다고 崔瑀에게 自願하기도 하였다.<sup>39)</sup>

비형은 뛰어난 공사감독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神的 존재로서 존경을 받았다. 여기에는 진지왕의 아들이라는 점에다 鬼胎의 탄생이야기가 그의 출신/근본상 신이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큰 공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정도가 일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怪力의 소유자임을 無言中에 홍보하고 있다. 그것은

---

37) 도깨비가 대장간의 신이라는 아래 자료를 들어두겠다. “두두리란 달천 철산 주변에 유포된 전설적인 사람으로 쇠의 神인 시우씨의 사자로서 쇠를神通하게 다룰 수 있는 초인력적인 기능인을 말한다”. 권병탁, <전통용광로 복원과 제련술 연구> 《민족문화논총》 12, 영남대학교, 1991, 151쪽.

38) 장주근, <제주도무속의 도깨비 신앙에 대하여－석탈해, 처용과의 비교－> 《국어교육》 15, 1972 ; 《한국민속연구논문집》 IV, 일조각, 1986, 389~393쪽.

39)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 왕가수.

곧 용춘을 포함한 전통적 公役指導者가 표출한 위기의식일 수도 있다. 이미 진지왕대에 불승이 백성들을 이끌고 공사를 감독한 사실이 戊戌塙作碑에<sup>40)</sup> 적혀 있다. 이같이 불교는 신앙뿐만 아니라 실제 민중들 삶의 현장에도 깊숙이 간여하여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터였다. 진지왕대 불승의 활동이 용춘이나 중대의 종교정책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진흥왕이 巡狩할 때 불승을 거느릴<sup>41)</sup> 정도로 불교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점, 그 뒤 몇 년 안 되는 진지왕의 짧은 재위기간 등을 고려하면 과연 진지왕이 얼마나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었을까도 생각해보아야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비형을 드높이려는 의도는 그 방법과 사상적 기반이 다를 뿐 진평·선덕왕으로 이어지는 동륜계의 불국토설-이 주장의 중심에는 진평·선덕왕이 내세우는 타고난 神聖이 있다-과 다를 바 없다. 이미 왕권이 동륜계로 넘어간 이상 당대의 고승·대덕이 왕 및 왕실의 편에 설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 반해 비형은 비록 왕위계승에서 밀려났지만 아직도 그를 지지하는 言衆은 결코 적지 않고 앞으로 자신들의 나라 신라가 흥하려면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비형랑>조의 이면에 깔려 있다. 비록 나라의 시책이 불교를 내세웠을지라도 전통적 사유와 가치는 불교라는 新思潮에 언제나 부담이 되는 존재이며, 중대 이후의 역사가 결코 불교일변도가 아님을 도화녀비형랑조는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0)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2, 가락국사적개발원, 1992, 97~102쪽 참조.

41)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2, 가락국사적개발원, 1992, 75~96쪽 참조.

## V. 맺음말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랑조는 《삼국유사》 왕력편의 편제상 진지왕의 身邊事를 기록한 것이라 하겠다. 그에 대해서는 선정을 베풀지 않았고 편협한 사랑에 빠졌다고 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을 적고 있다. 죽은 진지왕의 영혼이 관계하여 낳았다는 비형랑은 밤나들이를 좋아하고 무리지어 노는 등 엉뚱한 면이 있지만 높이 살만한 면 또한 적지 않다. 하룻밤에 귀신들을 부려 다리를 놓으며, 휘하의 인재를 나라에 천거하고, 자신의 무리라 하더라도 부정할 이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인간형이다. 이 정도면 아버지 진지왕에 대한 나쁜 평가를 충분히 보상할 만하다.

비형랑은 진지왕의 아들 용춘으로 비정되며, 용춘의 아들이 무열왕 김춘추다. 진지왕을 나쁘게 평가한 것은 그의 폐위에 대한 당위적 설명이거나 도화녀 설화의 전제이므로 크게 개의할 바가 못 된다.

비형랑은 중대 무열왕권의 鼻祖다. 진지왕에 대한 혹평 ‘政亂荒姪’에 얽매었다보면 비형랑의 탄생이 常道를 벗어난 것이지만, 그의 탄생설화는 오히려 고대의 개국시조에게서 볼 수 있는 신이함을 보여준다. 탄생부터 남달랐던 그의 신이함을 <도화녀비형랑>조에서는 ‘鬼’로 표현하였다. 귀신들을 거느리는 비형랑 자신도 귀신이며, 그가 하는 일은 귀신같은 솜씨로 ‘뚝뚝’ 완성된다.

진지왕이 돌아가신 뒤 왕위는 동륜계 즉 진평-선덕-진덕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사륜계 즉 용춘=비형은 설화에서 보듯이 진평왕으로부터 집사벼슬을 받았고 하나의 화랑세력을 이루고 있다. 용춘은 신라의 자랑거리인 황룡사구층탑 공사를 맡았지만, 그의 귀신같은 솜씨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다는 ‘귀신다리’로 더 이름이 났다. 이로

인해 비형랑은 신라 도깨비[두두리]의 시조로 알려졌으며 신격화되어 후대까지 존경을 받는다. 《삼국유사》를 보면 황룡사구층탑은 안흥·자장스님의 건의와 선덕왕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같이 동륜계왕들은 자신이 성골이므로 당연히 불·보살의 加被를 받아 나라를 일으켰다고 선전했다. 이러한 인식과 정반대되는 인물이 용춘=비형으로서 그는 전통신앙을 존중하는 부류로서 나름대로의 신앙적 기반을 유지하였다.

같은 役事를 두고 상반되는 주장이 나온 또 하나의 예는 영묘사다. 이 절은 양지스님이 禪定 속에서 이루어냈다는 《삼국유사》의 해설에 비해 지역에서는 그것 또한 두두리의 숨씨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자료에 의하면 <도화녀비형랑>조 이야기는 기실 신라 도깨비의 시조에 대해 해설한 본풀이[시조설화]였다. 이것이 일연스님의 손을 거치면서 재래의 권능자요 신격인 두두리 이야기가 소멸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 강은혜, <豆豆里(木郎) 再考—도깨비의 명칭분화와 관련하여> 《한국학논총》 16, 계명대학교, 1989.
- 강은혜, 《한국난타의 원형, 두두리 도깨비의 세계—도깨비 설화의 시작》, 예림 기획, 2003.
- 김기흥, <도화녀·비형랑 설화의 역사적 진실> 《한국사론》 41·42, 1999.
- 김덕원,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 김두진, <신라 진평왕대 초기의 정치개혁—삼국유사 所載 도화녀·비형랑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69, 1990.
- 김상엽, <소치 허련의 채씨효행도 삽화> 《미술사논단》 26, 한국미술사연구소, 2008.
-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1996.
- 박순교, <황룡사구층탑의 역사적 허실> 《유산강인구교수 정년기념 동북아고 문화논총》, 2002.
- 박순교, <진지왕의 개혁과 화랑도의 동향> 《청계사학》 18, 2003.
- 박은용, <木郎攷> 《한국전통문화연구》 2, 효성여자대학교, 1986.
- 신종원, <삼국유사 양지사석조 주석> 《고문화》 40·41, 1992.
- 신종원, <모죽지랑가의 역사적 배경—단석산신선사조상명기를 통하여—>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일지사, 2004.
- 신종원, <선덕여왕에 얽힌 소문의 진실>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일지사, 2004.
- 신태수, <도화녀·비형랑 설화의 구성원리와 대칭적 세계관의 향방> 《한민족 어문학》 45, 2004.
- 이하석, 《삼국유사의 현장기행》, 문예산책, 1995.
- 이한길, <도깨비담과 도깨비 연구> 《서강어문》 9, 1993.
- 임동권, <도깨비考> 《한국민속문화논고》, 집문당, 1982.
- 장장식, <도화녀·비형랑 설화의 성립과 의의> 《황산이흥종박사화갑기념사학 논총》, 1997.

장주근, <제주도무속의 도깨비 신앙에 대하여—석탈해, 처용과의 비교—> 《국어교육》 15, 1972 : 《한국민속연구논문집》 IV, 일조각, 1986.

전미희, <신라 진평왕대 가신집단의 관료화와 그 한계> 《국사관논총》 48, 1993.

최상수, <도깨비 다리> 《한국민간전설집》, 1958.

ABSTRACT

## Goblins' Power in the Dohwanyebihyeongnang section of the *Samguk Yusa*

Shin, Jong-Won

The Dohwanyebihyeongnang section of the *Samguk Yusa* is a record about King Jinji, but the record about his being dethroned and having a child named Bihyeongnang after a woman had relations with his soul is more detailed. The intention of this section seems to be to expose the fact that King Jinji did not administer his kingdom properly and that his reign was rather disorderly, but the depiction of his son Bihyeongnang is surprisingly friendly. Bihyeongnang enjoys going out at night and is good at leading his group and finishing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building bridges. Viewing his record of performances, Bihyeongnang corresponds with the son of King Jinji Yongchun who supervised the construction of the nine-story wooden pagoda of Hwangnyongsa monastery. He himself being a hwarang, having received important government posts and having participated in the field of battle, although Bihyeongnang was not within the limits of succeeding to the throne, nevertheless during the reign of King Jinpyeong and Queen Seondeok, Bihyeongnang was a figure that could not be disregarded. The background of the story seems to be that the extraordinary talents of Bihyeongnang were purposely propagated by his supporters in the

hope that he would accede to the throne.

Although the Dohwanyeobihyeonnang section of the *Samguk Yusa* refers to Bihyeongnang and his group as ghosts, their character is closer to goblins. Therefore, although a story such as Dohwanyeobihyeongnang was carried(in the *Samguk Yusa*), also in the conclusion of *Sinjeungdonggukyeojiseumgram* Bihyeongnang is mentioned as the father of the goblins of Silla. Also the first goblin Bihyeongnang was also later worshipped by the people of Gyeongju. The Middle-Old Period of Silla was the age of the Holy Bone Monarch Period, or the Dongnyun lineage of Jinpyeong – Seondeok – Jindeok. Overshadowed by the above (Dongnyun) lineage and obstructed from succeeding to the throne was the Saryun lineage of Yongchun and Gim Chunchu(Muyeol). As Gim Chunchu acceded to the throne after the reign of Queen Jindeok as King Muyeol, the Saryun lineage gained the ascendancy and the tale of Dohwanyeobihyeongnang was used to emphasize that the Saryun lineage was just as competent as the Dongnyun lineage and just as able to feed and support the populace.

The two lineages also contrast sharply in their religious beliefs. Whereas the Dongnyun lineage is firmly rooted in the teachings of Buddhism and high ranking monks are mobilized for that purpose, the Saryun lineage adheres to traditional beliefs such as that of goblins. The tale of Dohwanyeobihyeongnang shows that although the national ideology was that of the new religion of Buddhism, traditional beliefs and values continued to act as a burden to the new religion.

Key words : Bihyeongnang, Dohwanyeo, King Jinji, Yongchun, King Jinpyeong, Queen Seondeok, King Muyeol, ghosts, Holy Bone Monarch Period, Dongnyun, Saryun lineage, bridge

논문 투고일 : 2008. 12. 1

심사 완료일 : 2008. 12. 15

게재 확정일 : 2008. 12. 20